

# 북페스티벌이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Book Festivals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Library Revitalization

정 대 근(Dae-Keun Jeong)\* · 홍 소 람(So-Ram Hong)\*\*  
강 혜 라(Hye-Ra Kang)\*\*\* · 장 우 권(Woo-Kwon Chang)\*\*\*\*

### 〈목 차〉

I. 서론	1. 연구문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2. 선행연구	IV. 연구결과
II. 북페스티벌의 배경 및 사례	1. 일반현황 분석
1. 북페스티벌의 배경	2. 영향요인 분석
2. 북페스티벌의 국내외 사례조사	3. 시사점
III. 연구설계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는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북페스티벌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페스티벌에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북페스티벌의 참여는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참여자의 북페스티벌 인식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력(2.1~4.7%)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는 '도서 및 전시판매'(30.1%) 참여만족은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체험부스 참여만족은 도서관 인식(22.4%), 도서관 이용(26.4%)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인 참여만족 역시 참여자의 독서생활(24.5%), 도서관 인식(20.1%), 도서관 이용(27.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북페스티벌, 독서문화, 독서생활,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도서관 활성화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book festivals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library revitalization. The survey of participants of book festivals is conducted. As a result, it appears that participation of book festivals has a impact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recognition of and using library. The followings are results of this survey: recognition of participants about book festivals has a impact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 and recognition of library and using library, but the effect(2.1~4.7%) is slight; Satisfaction of book fair(display and selling booths) has a impact on personal reading habituation(30.1%); Satisfaction of experience booths has a impact on recognition of library(22.4%) and using library(26.4%);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in book festivals also has a impact on participant's reading habituation(24.5%), recognition of library(20.1%) and using library(27.5%).

Keywords: Book festival, Reading culture, Recognition of library, Using library, Library revitaliza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jdk1319@jn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과정(tower\_sun@hanmail.net) (공동저자)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과정(gang921229@naver.com) (공동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85-409,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385]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문화적 측면의 선진화는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발전, 국민 교양의 향상, 문화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문화적 마인드 등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만수 2010, 23). 이러한 관점에서 책과 독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에서 독서라는 행위는 인간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독서를 통해 인간은 삶에 필요한 정보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상상력,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고도의 지적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서는 대중에게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에 대한 인식의 증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양한 독서관련 정책이 양산되었다.

한국에서는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으로 매년 9월 독서의 달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서 관련 행사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를 법제 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관련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국민참여형 독서운동’을 기조로 제2차 독서문화진흥계획을 통해 독서운동의 활성화 를 촉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책을 주제로 한 행사의 대표 격인 ‘책 축제’가 보편화되었으며, 북페스티벌은 한국의 독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북페스티벌이 현장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특정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활동 양태 등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독서 행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 행위의 하나로 치부되었던 독서 행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데 있어 북페스티벌의 역할론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에서의 이론적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정비되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행사들이 활성화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최근 시작된 북페스티벌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대중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특정 북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미미하게 진행됨으로써 각 지역과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북페스티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 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북페스티벌 참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북페스티벌 프로그램 진행의 핵심 기관인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북페스티벌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북페스티벌은 개념의 복잡성과 그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간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독서행위를 개인이 아닌 집합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확장됨에 따라 북페스티벌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해외의 연구는 크게 북페스티벌의 관객을 중심으로 한 연구(Johanson and Freeman 2012; Driscoll 2015; Weber 2015)와, 북페스티벌이 가진 역할담론을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연구(Ommundsen 2009; Stewart 2009), 그리고 북페스티벌이 책과 책에 관련된 개인의 내적 동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연구(Meehan 2005) 등으로 나뉜다.

Johanson과 Freeman(2012)은 2009년에 실시된 태풍의 눈 라이터스 페스티벌을 사례로 삼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독서 경험을 개인에서 공중으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리터러리 페스티벌을 해석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의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개인이 향유하는 예술 형태로서의 ‘문학’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독서운동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북페스티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Driscoll(2015)은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기념한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리터러리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관객을 연구하기 위해 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을 연구함으로써 가설을 증명하고자 했다. 멜버른 라이터스 페스티벌에 관련된 20,189건의 트위터를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함으로써, 관객들이 강연을 진행하는 저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있느냐에 따라 더욱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결감은 관객이 얼마나 저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가 리터러리 페스티벌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임을 방증하였다.

Weber(2015)는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가진 공론적 가치와 사회참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페스티벌의 주제인 문학을 접하는 관객의 경험이 보다 깊은 층위에서 비판적인 참여의 개념으로 수행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리터러리 페스티벌에 관련된 개념의 다양성과 선행연구들에서 비롯된 접근 양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 블로그에서 표출된 페스티벌 관객 개개인의 경험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범주화 및 개념화하고자 시도하였다.

Ommundsen(2009)는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문학’이라는 예술의 영역을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매체로서의 책을 뛰어넘어 관객의 경험을 재생산하는지를 2003년 수행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되었던 ‘호주의 문학과 공공문화(Australian Literature and Public Culture)’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리터러리 페스티벌이 책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독자와 작가가 구축한 현실세계의 체계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문학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전도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책을 향유하는 문화를 재구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Stewart(2009)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현대의 라이터스 페스티벌이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산업적·경제적 기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스티벌에 관련된 문화적 관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가지 페스티벌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개인 차원에서 사회를 보는 관점을 재구축하는 연구와 달리 사회적 차원에서 북페스티벌이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제시했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Meehan(2005)는 문학적 생산물, 즉 글로 표현된 내용들을 실체화시키는 차원으로 북페스티벌을 접근하였다. 특히 거대화된 출판 산업으로 인해 획일화되어버린 문화를 표현하는 그 자체로서의 성질을 띠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적 차원에서 문학의 가치 본연을 복원시키는 페스티벌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 강조되는 점은 축제가 가진 전도적 속성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왔던 것 혹은 이미 형성된 관계를 새롭게 포장하며, 책 그 자체와 저자 또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이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당황과 혼란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고 더욱 활발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하며, 문학 속에서 빚어진 현실 세계를 더욱 명확히 목도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도서관을 위시로 한 공공영역에서 개최되는 북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만수(2008)는 독서행위가 삶에 미치는 영향성을 강조하여 연구의 당위를 설명하고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진흥행사에 관련된 실태를 연구하였다. 설문 결과로 바탕으로 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부서의 조직, 사서교사의 업무 담당, 공간·홍보활동·관련단체와의 협력·예산편성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절기 및 주간에 따른 행사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조찬식(2013)은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캠페인을 바탕으로 대중독서운동의 내용과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이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북페스티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북페스티벌을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대중독서운동의 꽃’이라고 표현하며,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이 이어져서 조찬식(2016)은 북페스티벌을 중심 화두로, 2015년 성북구 책모꼬지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 혹은 대중독서운동의 화두 등 부차적으로 제시된 북페스티벌을 연구 주제로 제시한 최초의 국내 연구이며, 또한 북페스티벌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축제 분야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여 북페스티벌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확장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대근, 강혜라, 홍소람(2016)은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북페스티벌의 역사 및 정책, 사례조사를 통하여 북페스티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이처럼 북페스티벌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부 북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독서운동으로서 북페스티벌이 가지는 의미망을 추출해내거나, 문학이나 출판 산업과의 관계망을 통해 개인 혹은 사회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도서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더라도 이것이 실증적으로 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 II. 북페스티벌의 배경 및 사례

### 1. 북페스티벌의 배경

#### 가. 북페스티벌 개념

북페스티벌(book festival)은 국내에서는 책모꼬지, 책축제, 책잔치라고 표현되거나, 해외에서는 리터러리 페스티벌(literary festival)이나 라이터스 페스티벌(writers' festival)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안찬수 2014, 16; 조찬식 2016, 136). 이처럼 다양하게 명명되는 행사들은 ‘책’과 ‘독서’, ‘공동체’라는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라이터스 페스티벌이나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어왔던 독서 행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독자와 독자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책이라는 대상화된 매개에서 한걸음 나아가, 책을 바탕으로 한 상호경험을 나누는 독자와 저자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Johanson and Freeman 2012; Meehan 2005).

이들 리터러리/라이터스 페스티벌의 핵심은 다양한 저자의 강연이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연사들을 초대하여 일정표에 맞춰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페스티벌의 내용이다. 특히 때로는 단순히 책의 작가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회적 유명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사를 초청함으로써 문학이나 작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지적 담론의 장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북페스티벌은 이런 리터러리/라이터스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개념에, 북페어 등으로 대변되는 매체적인 책의 교환 및 교류의 개념을 한꺼번에 함의한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나 작가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출판 행위, 더 나아가서는 책을 생산하는 출판업계 자체에 대한 화두도 북페스티벌의 중요한 한 꼭지가 된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은 매체로서의 ‘책’,

행위로서의 ‘독서’, 행위자로서의 ‘공동체’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 나. 북페스티벌 역사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리터러리 페스티벌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리터러리 페스티벌로 꼽는 것은 1949년 영국에서 시작한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Cheltenham Literary Festival)과 이를 벤치마킹해 1960년 호주에서 시작한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Adelaide Writers' Week)이다(Cheltenham Literary Festival Homepage 2016; Ommundsen 2009, 20). 이후 이 페스티벌들을 벤치마킹하여 주로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현행 북페스티벌의 많은 형태가 이 두 개의 페스티벌에 기반을 둔다.

한국의 페스티벌이 리터러리/라이터스 페스티벌과 달리 ‘북페스티벌’, ‘책축제’ 등으로 명명되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책 관련 행사가 북페어와 유사한 형태의 도서전이었기 때문이다. 광복 이래, 최초로 책 및 독서 관련 행사가 열렸던 것은 1947년 10월 경기도 학무국 주최의 교육전람회이다(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 2016). 이 행사를 바탕으로 1954년 문교부 시교육미공보원, 미국교육사절단, 중앙교육연구소, 국립도서관이 함께 주최한 제1회 독서주간 행사가 열렸으며 이후 1958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현재 서울국제도서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국내도서전시회가 개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본격적 의미에서의 북페스티벌은 2000년도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MBC에서 방영되었던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등의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책과 독서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된 것과도 많은 부분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관 차원에서의 책 관련 행사가 활성화된 것은 법률적·정책적 영향이 가장 크다. 1995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기틀을 마련하면서 그 이전에 제정되었던 독서의 달이나 책의 날 등 기념일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당위를 갖추어 따라 북페스티벌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대중화되었다.

#### 다. 북페스티벌 정책

한국적 북페스티벌 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2007년에 각각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제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시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독서문화진흥법 5조에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2009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대중독서운동에 대한 관심이 정책화됨으로써 독서운동의 일환으로서 독서의 달 행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화되었다.

특히 제1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보완하여 2013년 제시된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명문화하여 일상적 차원에서 계기별 독서 행사

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이라는 항목에서도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을 전개’한다는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전략과제에서는 독서의 달을 계기로 한 전국 단위 독서운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책의 날이나 다른 주제가 있는 기간에도 독서와 연관시킨 행사를 장려함으로써 법적 체계와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 관 주도의 북페스티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35-36).

한국의 정책방향성을 국외의 대중독서운동 관련 정책과 비교해보면 영미권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에서는 행정이나 재정 측면에서만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뿐 대중독서운동을 이끄는 핵심은 민간을 위시로 한 개인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기획자나 시민단체 등이 대중독서운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원의 영역을 저자, 출판사, 서점 등 연관된 직종 및 산업의 영역으로 넓히며 독서행위를 권장할 뿐 아니라 출판생태계 활성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책과 교육연구소 2015, 59-96, 145). 핀란드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삶의 일상 영역에 보편적으로 매우 깊게 녹아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위시로 대중독서운동이 진행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거나 홍보적인 북페스티벌 등의 독서운동보다 일반적 정보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책과교육연구소 2015, 127-135).

일본과 같은 경우는 한국과 유사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는 ‘공독(共讀)’이라는 표현을 2011년 문부과학성의 ‘국민독서 추진에 관한 협력자 회의’ 보고서에서 사용함으로써 독서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일본도 한국에서의 독서의 달과 유사하게 ‘어린이 독서주간’과 ‘독서주간’을 각각 봄과 가을에 운영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독서진흥정책의 주요 배경이 젊은 세대의 ‘활자 이탈’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배양하고 사고의 힘을 함양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방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책과교육연구소 2015, 164-165).

따라서 한국적 북페스티벌은 해외의 여타 책 관련 페스티벌과 그 역사적 배경 및 정책적 방향에서 많은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주요 시발점이 도서전이었으며 법적·정책적으로 관 주도의 행사가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 독서 행위를 개인의 기호 측면이 아닌 사회통합 및 발전의 기틀로써 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의 북페스티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기반이 되는 정책적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2. 북페스티벌의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 북페스티벌 중에서 5년 이상 개최되고 있고, 주최·주관기관별로 특색이 있는 북페스티벌을 대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표 1 참조>.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국내 북페스티벌의 운영이 대다수 상기 언급한 정책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유관 기관과 지역민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북페스티벌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축제의 운영방향에 있어 ‘문화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성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국내 북페스티벌 사례

축제명 분류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서울북페스티벌	강동북페스티벌	과주북소리	삼례북페스티벌	제주책축제
시작	2005	2008	2010	2011	2000	2006
주최·주관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강동구도서관리공단, 강동구립도서관	과주북소리조직위원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완주군청, 책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특징	-지역문화 정체성 기반 축제 : 흥대 책과 다른 매체 (예술매체)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발전 도모 -문화적 소외 및 격차를 줄이는 문화 창구 역할	-시민참여형 북페스티벌 -공공성이 높은 북페스티벌 -다수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북페스티벌 : 축제도서관 -활발한 사서들의 참여 독려 -독서동아리 등 봉사자를 통한 운영	-공공도서관 최초로 북페스티벌 주관 -도서관축제와 거리축제(북페스티벌)로 나눠 축제 진행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성 강화	-‘과주출판도시’라는 지역정체성 기반 : 8,500명의 출판업 종사자 -출판사 주도 프로그램 다수 구성 -국제교류프로그램 다수 구성 → 국내 최대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과 헤이온페스티벌을 모티브로 삼음	-학생 대상 -고서를 다루는 북페스티벌 -삼례 예술촌을 통한 융합적 문화접근 가능 -역사적 공간에 축제라는 활동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재생성 지원 <sup>1)</sup>	-도교육청 최초로 북페스티벌 주최 -학생들이 주 대상 -도내 학교 교과연구회의 부스 참여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또래독서문화 형성 -‘제주’지역 방언 부스 마련 : 문화 지속성

※ 정대근, 강해라, 홍소람(2016) 연구를 수정·보완함

국외 북페스티벌 중에서 영미권에서 개최되는 북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주최·주관기관별로 다른 특징을 가진 북페스티벌을 대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표 2 참조>.

국외 북페스티벌은 ‘작가-독자의 토론 및 강연, 만남’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있었으며,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리·비영리단체·개인의 후원을 장려함으로써 유관단체 및 개인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었으며, ‘개인의 자아발전’을 북페스티벌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표 2> 국외 북페스티벌 사례

축제명 분류	미국의회도서관 내셔널 북페스티벌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	켈튼업 리터러리 페스티벌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
시작	2001	1983	1949	1960
주최·주관	Library of Congress	The City of Edinburgh Council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rts Council England	Adelaide City Council
개최국	미국	영국	영국	호주
주요	-사서출신인 미국영부인	-국제적인 작가 포럼 : 55개국 작	-세계 최초의 북페스티벌	-‘Adelaide Festival of Art’

1) 일제강점기에 양극창고로 쓰이던 창고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외관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다(책과삼 2014. 10. 01).

특징	이 명예의장으로 활동 -모든 종류의 스토리텔링 매체들을 대상으로 기획 -가족 간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개인&단체의 후원으로 운영	가 참석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다수 운영 -관객과 작가들이 세계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 -독립적인 도서관매전의 수익금과 후원 및 협찬으로 운영 -연령층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다양한 계층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하여 토론 진행 -Big Read를 선정, 토론 '문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강연자로 초청 -연간회원(축제멤버십)을 운영하여 차등적으로 축제 참여	과 같이 진행 : 하위 축제 -1970~80년대에 현재의 북페스티벌 형태를 갖춘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의 영향을 받음→각계각층의 연사들 초청 -가까운 도서관에서 강의를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입지
----	----------------------------------------------------------------------------------	---------------------------------------------------------------------------------------------------------------------------	----------------------------------------------------------------------------------------------------------------------	---------------------------------------------------------------------------------------------------------------------------------------------------

※ 정대근, 강혜라, 함소람(2016) 연구를 수정·보완함

국내·외 북페스티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의 구성’, ‘테마’, ‘프로그램 유/무료’에서 나타난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의 측면에서 국내는 독서문화의 확산을 북페스티벌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부스’, ‘도서전(교환)’의 프로그램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외는 과거 작가들만의 모임에서 작가-독자의 모임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작가의 강연’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국내는 매년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강연자가 선정되는 반면, 국외는 많은 수의 작가를 초청하기 때문에 특정한 테마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프로그램 가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되고, 유료인 프로그램도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국외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유료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국내외의 프로그램 구성과 북페스티벌의 근본적인 목적(공공성/개인의 자아개발)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한다는 점과 ‘지역공동체의 참여’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표 3〉 국내·외 북페스티벌 비교분석

축제명	국내						국외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서울 북페스티벌	강동 북페스티벌	파주북소리	삼례 북페스티벌	제주책축제	미국 의회도서관 북페스티벌	에든버러 국제 북페스티벌	첼튼엄 리터러리 페스티벌	애들레이드 작가 주간
개최주최	사회적 기업	지역 도서관	공공기관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지방 지치단체	교육청, 교육연구회	국가도서관	정부, 시의회	예술위원회	시의회
지역공동체 참여	○	○	○	○	X	○	○	△	△	○
테마	○	○	○	○	X	X	X	○	X	X
프로그램 구성	도서와 관련된 체험부스, 도서전 및 도서 교환 중심 구성						작가의 강연 중심 구성			
	강연	✓	✓		✓		✓		✓	
	전시				✓		✓			
	문화공연				✓		✓			
	체험			✓	✓	✓	✓	✓		✓
	도서전 (교환)	✓			✓	✓	✓	✓	✓	
국제교류	✓			✓			✓			
프로그램 유/무료	무료(부분유료)						유료(각 프로그램마다 결제, 부분무료)			

※ 프로그램구성 : 프로그램의 형태를 기반으로 구분,

※ 삼례북페스티벌은 2015년 프로그램 기반

### Ⅲ. 연구설계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문화가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장되어가고 있는 독서문화 활동의 일환인 북페스티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북페스티벌의 참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페스티벌 참여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북페스티벌 인식 및 참여 만족도, 도서관 활성화(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북페스티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북페스티벌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31일까지 북페스티벌을 참석한 후 SNS에 글을 게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차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북페스티벌에 참석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설문조사는 2016년 8월 이후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북페스티벌에 참석한 후 SNS에 글을 게시한 참석자로 1차 온라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 31일~2016년 11월 6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510부

〈표 4〉 설문조사 개요

구분	1차		2차	3차	계
	페이스북	블로그	광주광역시 남구민북페스티벌	블로그	
조사기간	2016.07.31~08.07		2016.09.23	2016.10.19~11.06	2016.07.31~11.06
조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
조사대상	150명	150명	60명	150명	510명
회수(회수율)	49명(16.3%)		56명(93.3%)	41명(27.3%)	146명(28.6%)

를 배포하여 14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3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기술통계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단순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설문문항의 작성 시 북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매체로서의 책과의 관련성 및 참여자의 입장에서 도서전, 체험부스, 무대행사 등 3가지로 구분하였고, 전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준거는 류정아(2015)가 축제 기획에서 제시한 요소를 추출하였다 근거에 따른 문항 추출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설문 문항 추출 요소

구분	문항(세부 문항)	문항수
북페스티벌 참여 이력	정보 습득 경로, 참여 횟수, 참여 페스티벌 종류, 참여 목적, 페스티벌 내 참여 행사	5문항
북페스티벌 인식	행사 필요성(도서 전시 및 판매, 책 중고 베품장터, 무대행사, 저자 및 출판업계 강연, 공예 및 제작 등의 체험 부스, 책 관련 OSMU)	6문항
	행사 중요 요소(참여와 공감, 재미와 체험, 개방과 포용, 지속 가능성, 호혜적 상생)	5문항
참여 만족도	도서 전시 및 판매(지역성, 흥미성, 포괄성, 체험성, 스토리 확장성, 상품성 및 경제성)	6문항
	공연 및 강연(지역성, 흥미성, 포괄성, 체험성, 스토리 확장성)	4문항
	체험부스(지역성, 흥미성, 포괄성, 스토리 확장성, 상품성 및 경제성)	5문항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개방성, 시설, 진행, 스토리 확장성, 목적달성 재방문 의사)	5문항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이용 영향(독서생활,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3문항
일반현황	성별, 연령, 거주 지역	3문항
	계	42문항

## IV. 연구결과

### 1. 일반현황 분석

#### 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이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참여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성별은 남성(31.4%)에 비해 여성(68.6%)의 비율이 높았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20대와 30대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광주·전라권이 42.3%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경우 참여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북페스티벌의 주요 참여자는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표 6〉 응답자 일반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43	31.4	거주지	서울·경기권	69	50.4
	여성	94	68.6		강원도	-	-
	계	137	100.0		대전·충청권	2	1.5
연령	10대 이하	12	8.8		광주·전라권	58	42.3
	20대	44	32.1		부산·대구·경상권	6	4.4
	30대	44	32.1		제주권	2	1.5
	40대	24	17.5		계	137	100.0
	50대	13	9.5				
	계	137	100.0				

나. 북페스티벌 참여 경로 및 목적

북페스티벌의 참여 경로 및 목적은 <표 7>과 같다. 북페스티벌을 참여하게 된 경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북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되어 참여한 비율이 전체의 24.1%를 차지하였으며, 도서관을 통해 알게 되어 참석한 비율도 22.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인블로그(15.3%), 전단지(8.8%), 신문·방송기사(6.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학교, 지인소개, 온라인서점, 독서모임, 인터넷카페,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페스티벌 참여자의 참여 목적을 살펴보면 ‘체험 부스를 참여하기 위해’ 북페스티벌을 참여한 경우가 전체의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책 관련 행사를 향유하기 위해서’가 21.9%로 나타났다. ‘자녀 독서 교육 및 경험’, ‘다양한 출판사의 책 체험 및 구매를 위해서’ 북페스티벌을 참여한 비율은 15.3%였으며,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참여한 경우’도 10.9%나 되었다. 기타로는 자원봉사 및 부스 운영을 목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7〉 북페스티벌 참여 경로 및 목적

참여경로	빈도(명)	백분율(%)	참여목적	빈도(명)	백분율(%)
개인블로그	21	15.3	자녀 독서 교육·경험	21	15.3
홈페이지(지자체, 공식 등)	33	24.1	다양한 출판사 책 체험·구매	21	15.3
도서관	31	22.6	책 관련 행사 향유	30	21.9
전단지	12	8.8	체험 부스 참여	33	24.1
신문·방송기사	9	6.6	지나가던 길에 참여	15	10.9
기타	31	22.6	기타	17	12.4
계	137	100.0	계	137	100.0

다. 북페스티벌 참여횟수 및 참여 기관

설문 응답자들의 49.6%는 북페스티벌에 1회만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북페스티벌 참여 경험이 5회 이상인 응답자도 전체의 19%로 나타났다.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북페

스티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북페스티벌이 전체의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대표 북페스티벌인 파주 북소리, 와우북 페스티벌, 서울 북페스티벌 등은 28.5~23.4% 등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북페스티벌 참여횟수 및 참여 행사

참여횟수	빈도(명)	백분율(%)	참여 행사	빈도(명)	백분율(%)
1회	68	49.6	와우북 페스티벌	35	25.5
2회	22	16.1	서울 북페스티벌	32	23.4
3회	17	12.4	파주 북소리	39	28.5
4회	4	2.9	지자체 북페스티벌	68	49.6
5회 이상	26	19.0	개별 도서관 북페스티벌	16	11.7
계	137	100.0	사회단체 및 기관 주최 북페스티벌	13	9.5
			기타	4	2.9
			계	137	100.0

#### 라. 북페스티벌 인식

북페스티벌 참가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 내 행사의 필요성과 북페스티벌 행사의 중요 요소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페스티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식이 가장 높은 행사는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 전시 및 판매 부스(4.139)’였으며, 다음으로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화나 음악, 연극 등 다른 매체 작품 상연 행사(4.1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 사회 주민 중심의 무대행사’의 경우 3.467점으로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았다. 북페스티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은 리커트척도 5점 만점에 3.965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북페스티벌 행사에 있어 중요 요소에 대한 질문은 전체평균 4.286점으로 모든 요소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세부 요소 중 북페스티벌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요소인 ‘지속 가능성’을 4.526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방문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재미와 체험(4.460)’, 특정 계층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개방과 포용(4.307)’ 등의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호혜와 상생’에 있어서는 3.96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북페스티벌 인식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행사의 필요성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 전시 및 판매 부스	137	4.139	.7782	3.965
	책 중고 베품장터	137	4.051	.8073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무대행사	137	3.467	.9240	
	책의 저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강연	137	4.058	.9217	
	공예 및 제작 등의 체험 부스	137	3.956	.9064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화나 음악, 연극 등 다른 매체 작품 상연	137	4.117	.7383	
행사 중요 요소	참여와 공감	137	4.175	.8566	4.286
	재미와 체험	137	4.460	.7073	
	개방과 포용	137	4.307	.7818	
	지속 가능성	137	4.526	.6651	
	호혜적 상생	137	3.964	.9503	

마. 북페스티벌 참여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도서전시 및 판매, 공연 및 강연, 체험부스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인 북페스티벌의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다음 <표 10>과 같다.

북페스티벌에 이루어지는 행사 분야별 참여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체험부스에 대한 만족도’가 3.7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연 및 강연(3.582)’, ‘도서 전시 및 판매(3.304)’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전시 및 판매의 세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북페스티벌의 ‘도서전이 흥미로웠다’는 응답이 3.62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책 판매 및 중고장터 등에서 책을 구입’ 한 부분에 대해서는 3.0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에서 진행된 공연 및 강연에 대한 세부 만족도는 ‘북페스티벌에서 진행된 공연 및 강연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3.7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및 강연자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3.4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험부스의 경우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단체들이 체험부스를 운영(3.810)’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3.606)’ 및 ‘체험부스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합리성(3.606)’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북페스티벌의 ‘전반적인 참여 만족도’는 3.704점으로, 북페스티벌 참석자들은 북페스티벌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북페스티벌의 ‘재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4.051점으로 향후 북페스티벌에 대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적 편리성(3.453점)’과 ‘진행의 편리성(3.489점)’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은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10〉 북페스티벌 참여 만족도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도서 전시 및 판매	지역 출판사/서점 인식도	137	3.161	1.0448	3.304
	도서전 흥미도	137	3.620	.9404	
	다양한 책/출판사 참여	137	3.489	1.0369	
	중고장터 참여	137	3.058	1.3216	
	도서전 주제/테마	137	3.350	1.0261	
공연 및 강연	저렴한 책	137	3.146	1.1539	3.582
	지역 아티스트/강연자 참여	137	3.460	.9626	
	공연/강연 유익	137	3.796	.8587	
	다양한 계층의 참여 가능	137	3.569	.9377	
체험부스	공연과 책과 연관성	137	3.504	.9165	3.718
	지역사회 참여	137	3.810	.8535	
	콘텐츠 재미도	137	3.788	.8864	
	다양한 계층의 참여 가능	137	3.606	.9343	
	체험부스와 책의 연관성	137	3.781	.897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합리적 비용	137	3.606	.8433	3.704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참여	137	3.796	.8672	
	시설의 편리함	137	3.453	.9998	
	진행적 편리함	137	3.489	.9861	
	참여 목적 달성	137	3.730	.9035	
재참여 의사	137	4.051	.8772		

바. 독서생활 및 도서관활성화 영향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후 참여자들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있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북페스티벌의 참석이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인 5점 만점 중 3.9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3.657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으로 연결되었다’는 응답은 3.3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북페스티벌이 독서생활 및 도서관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독서생활	137	3.657	.9191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인식	137	3.956
	도서관 이용	137	3.365

2. 영향요인 분석

가. 개인특성에 따라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북페스티벌의 인식 및 참여 만족도, 개인의 독서 생활, 도서관 인식 및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인식 및 참여 만족도, 개인의 독서 생활, 도서관 인식 및 이용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성별	평균	t값	P
북페스티벌	행사의 필요성	남성	3.892	-1.162	.247
		여성	3.998		
인식	행사 중요 요소	남성	4.265	-.314	.754
		여성	4.296		
참여만족도	도서전시 및 판매	남성	3.306	.021	.983
		여성	3.303		
	공연 및 강연	남성	3.663	.879	.381
		여성	3.545		
	체험부스	남성	3.833	1.279	.203
		여성	3.666		
전반적인 만족도	남성	3.777	.770	.443	
	여성	3.670			
독서생활	독서생활에 도움	남성	3.744	.750	.454
		여성	3.617		
및	도서관 긍정적 인식	남성	3.837	-1.004	.317
		여성	4.011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이용 횟수 증가	남성	3.395	.224	.823
		여성	3.351		

유의확률 \*p&lt;0.05, \*\*p&lt;0.01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북페스티벌의 인식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 중 ‘도서 전시 및 판매’, ‘공연 및 강연’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반면 체험부스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부스의 경우 10대 이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10대 이하가 20대나 3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생활에 있어서도 10대 이하와 20대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10대의 경우 20대보다 독서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식 및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횟수에 따라서는 독서 생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생활의 경우 참여횟수가 1회인 이용자에 비해 참여횟수가 3회인 이용자가 개인의 독서 생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북페스티벌의 참여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북페스티벌 인식 요소인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경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행사의 중요 요소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를 통해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참여자에 비해 도서관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가 ‘참여와 공감’, ‘재미와 체험’, ‘개방과 포용’, ‘지속 가능성’, ‘호혜적 상생’ 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만족도에 있어서는 참여경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생활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통해 북페스티벌을 참여한 참여자들과 학교나 지인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컸

으며,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도서관을 통해 참여한 이용자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에 비해 도서관 이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연령 및 참여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

구분	연령					참여횟수					
	연령	평균	F	P	사후분석	참여횟수	평균	F	P	사후분석	
북페스티벌 인식	행사의 필요성	① 10대 이하	3.944	1.907	.113		① 1회	3.880	1.935	.108	
		② 20대	3.867				② 2회	3.985			
		③ 30대	4.008				③ 3회	3.922			
		④ 40대	4.167				④ 4회	4.333			
		⑤ 50대 이상	3.795				⑤ 5회 이상	4.141			
	행사 중요 요소	① 10대 이하	4.467	2.410	.052		① 1회	4.203	1.540	.194	
		② 20대	4.177				② 2회	4.309			
		③ 30대	4.232				③ 3회	4.306			
		④ 40대	4.533				④ 4회	4.750			
		⑤ 50대 이상	4.215				⑤ 5회 이상	4.400			
참여 만족도	도서전시 및 판매	① 10대 이하	3.611	.951	.437		① 1회	3.240	1.654	.164	
		② 20대	3.201				② 2회	3.091			
		③ 30대	3.273				③ 3회	3.343			
		④ 40대	3.444				④ 4회	3.750			
		⑤ 50대 이상	3.218				⑤ 5회 이상	3.558			
	공연 및 강연	① 10대 이하	4.125	2.011	.097		① 1회	3.669	2.248	.067	
		② 20대	3.494				② 2회	3.227			
		③ 30대	3.528				③ 3회	3.515			
		④ 40대	3.615				④ 4회	4.125			
		⑤ 50대 이상	3.500				⑤ 5회 이상	3.615			
	체험부스	① 10대 이하	4.483	4.322	.003*	① > ② ① > ③ ① > ④ ① > ⑤	① 1회	3.862	2.080	.087	
		② 20대	3.659				② 2회	3.564			
		③ 30대	3.682				③ 3회	3.800			
		④ 40대	3.567				④ 4회	3.400			
		⑤ 50대 이상	3.615				⑤ 5회 이상	3.469			
	북페스티벌 전 반적인 만족도	① 10대 이하	4.367	2.934	.023*	① > ② ① > ③	① 1회	3.700	.747	.562	
		② 20대	3.605				② 2회	3.518			
		③ 30대	3.596				③ 3회	3.906			
		④ 40대	3.733				④ 4회	3.950			
		⑤ 50대 이상	3.739				⑤ 5회 이상	3.700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독서생활에 도움	① 10대 이하	4.250	3.355	.012*	① > ②	① 1회	3.500	3.475	.010*	① > ③
		② 20대	3.318				② 2회	3.500			
		③ 30대	3.818				③ 3회	4.176			
		④ 40대	3.625				④ 4회	3.000			
		⑤ 50대 이상	3.769				⑤ 5회 이상	3.962			
	도서관 긍정적 인식	① 10대 이하	4.000	1.664	.162		① 1회	3.926	.170	.953	
		② 20대	3.705				② 2회	4.045			
		③ 30대	4.068				③ 3회	4.059			
		④ 40대	3.958				④ 4회	3.750			
		⑤ 50대 이상	4.385				⑤ 5회 이상	3.923			
	도서관 이용 횟수 증가	① 10대 이하	3.750	1.842	.125		① 1회	3.456	.640	.635	
		② 20대	3.045				② 2회	3.364			
		③ 30대	3.568				③ 3회	3.471			
		④ 40대	3.333				④ 4회	3.250			
		⑤ 50대 이상	3.462				⑤ 5회 이상	3.077			

유의확률 \*p<0.05, \*\*p<0.01

<표 14> 참여경로에 따른 북페스티벌 인식 및 참여만족도 차이 분석

구분	참여 경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분석	구분	참여 경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 분석	
북 페스티벌 인식	행사의 필요성	①	21	3.8413	.59038	.795	.555	도서 전시 및 판매	①	21	3.3730	.56986	1.691	.141		
		②	33	4.0404	.57287				②	33	3.4192	.69112				
		③	31	3.9892	.42369				③	31	3.2849	.79372				
		④	12	4.0000	.59033				④	12	3.4306	.68703				
		⑤	9	4.1296	.23241				⑤	9	3.6667	.47140				
		⑥	31	3.8817	.44136				⑥	31	3.0000	.94084				
독서 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독서생활에 도움	①	21	4.095	.7003	1.969	.087	참여 만족도	공연 및 강연	①	21	3.4405	.74542	1.412	.224	
		②	33	3.606	.9334					②	33	3.7879	.61276			
		③	31	3.710	.9727					③	31	3.7097	.66174			
		④	12	3.833	.8348					④	12	3.4375	.81968			
		⑤	9	3.222	.8333					⑤	9	3.5556	.30046			
		⑥	31	3.419	.9583					⑥	31	3.3952	.88688			
독서 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긍정적 인식	①	21	4.095	.8891	2.615	.027*	③>⑥	체험 부스	①	21	3.5048	.72005	1.746	.129	
		②	33	3.788	.9924					②	33	3.6242	.74793			
		③	31	4.419	.7199					③	31	4.0194	.61178			
		④	12	3.833	.9374					④	12	3.6333	.70238			
		⑤	9	3.778	.4410					⑤	9	3.6000	.38730			
		⑥	31	3.677	1.0766					⑥	31	3.7290	.77554			
독서 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이용 횟수 증가	①	21	3.238	1.2611	2.734	.022*	③>⑤	북 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①	21	3.6952	.74998	.785	.563	
		②	33	3.333	1.0206					②	33	3.7636	.67353			
		③	31	3.871	1.0244					③	31	3.8774	.77576			
		④	12	3.250	1.0553					④	12	3.5667	.81278			
		⑤	9	2.556	.7265					⑤	9	3.6889	.41366			
		⑥	31	3.258	.9650					⑥	31	3.5290	.85565			

①개인블로그 ②홈페이지(지자체) ③도서관 ④전단지 ⑤신문·방송기사 ⑥기타  
 유의확률 \*p<0.05, \*\*p<0.01

나. 북페스티벌 인식이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에서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북페스티벌의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북페스티벌의 행사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독서생활의 경우 행사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R2 값이 4.7%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도서관 인식의 경우도 행사의 필요성은 4.1%, 행사 중요 요소는 8.3%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의 경우 행사의 필요성은 6.4%, 행사 중요 요소는 10.8%로 북페스티벌이 도서관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북페스티벌 인식과 독서생활, 도서관 활성화 영향관계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R <sup>2</sup>	t	p	
		B	표준오차	베타(R)				
독서생활	행사의 필요성	.398	.155	.216	.047	2.573	.011*	
	행사 중요 요소	.250	.148	.143	.021	1.683	.095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인식	행사의 필요성	.435	.180	.203	.041	2.409	.017*
		행사 중요 요소	.584	.167	.288	.083	3.492	.001**
	도서관 이용	행사의 필요성	.475	.156	.253	.064	3.036	.003*
		행사 중요 요소	.585	.145	.329	.108	4.043	.000**

유의확률 \*p<0.05, \*\*p<0.01

다.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가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인식 및 이용에 모든 항목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와 독서생활, 도서관 활성화 영향관계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R <sup>2</sup>	t	p	
		B	표준오차	베타(R)				
독서생활	도서전시 및 판매	.662	.087	.549	.301	7.631	.000**	
	공연 및 강연	.438	.102	.346	.119	4.280	.000**	
	체험부스	.449	.105	.347	.120	4.297	.00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617	.091	.504	.254	6.776	.000**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인식	도서전시 및 판매	.521	.112	.371	.137	4.639	.000**
		공연 및 강연	.550	.118	.373	.139	4.670	.000**
		체험부스	.717	.114	.475	.226	6.279	.00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640	.110	.449	.201	5.832	.000**
	도서관 이용	도서전시 및 판매	.443	.099	.360	.129	4.480	.000**
		공연 및 강연	.509	.102	.394	.155	4.981	.000**
		체험부스	.680	.098	.514	.264	6.958	.000**
		북페스티벌 전반적인 만족도	.655	.092	.524	.275	7.153	.000**

유의확률 \*p<0.05, \*\*p<0.01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 중 독서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서 전시 및 판매’에 대한 만족도로 설명력이 30.1%였으며, 전반적인 북페스티벌의 만족도 역시 설명력이 25.4%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연 및 강연’(11.9%), ‘체험 부스’(12.0%)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는 ‘체험부스’에 대한 만족도(22.6%)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29.1%) 역시 도서관 인식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전시 및 판매’(13.7%), ‘공연 및 강연’(13.9%) 역시 도서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의 경우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의 설명력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북페스티벌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부스 역시 26.4%의 설명력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전시 및 판매’(12.9%), ‘공연 및 강연’(15.5%)은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시사점

북페스티벌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식 및 참여만족도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참여경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북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비중이 높았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20~30대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또한 참여목적으로는 ‘체험부스’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독서교육이 참여목적인 이용자도 상당수 있었다. 참여연령과 참여목적에 감안할 때 북페스티벌의 실질적 참여이유는 본인보다는 자녀들의 독서교육 및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의 기획에 있어 자녀-부모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북페스티벌의 인식에 관련하여서는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관 전시 및 판매 부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주민 중심으로 무대행사’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행사 중요 요소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행사의 ‘지속가능성’으로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하나의 축제, 더 나아가 문화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북페스티벌의 발전을 의미하는 호혜적 상생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식적 부분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북페스티벌이 책과 관련한 주요 행사로써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로의 발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문화와 연계한 북페스티벌의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리커트척도 5점 만점에 3.3~3.7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북페스티벌이 책을 매개로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페스티벌에서 참여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는 ‘체험부스’로 참여자의 참여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는 북페스티벌은 참여자의 참여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도서 전시 및 판매’ 요소에 있어 ‘도서전’ 자체는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으나, 도서 판매와 관련한 ‘중고장터 및 저렴한 책’ 요소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참석자의 경우 북페스티벌을 통해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페스티벌에 참여하나,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북페스티벌에서조차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없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북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을 통해 북페스티벌을 통한 도서관매의 경우 유연한 법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는 시설이나 진행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페스티벌의 재참여 의사가 4.05로 북페스티벌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설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확실한 지역 독서문화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페스티벌이 개인의 독서생활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 및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 인식의 경우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던 반면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페스티벌 인식이 개인의 독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2.1~4.7%로 매우 낮았으며,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요소가 10.8%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북페스티벌 참여만족도는 개인의 독서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도서 전시 및 판매’의 경우 그 영향력이 30.1%였으며, 전반적인 북페스티벌 만족도 역시 24.5%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연과 강연(11.9%)’ 및 ‘체험부스(12.0%)’ 등은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생활과는 반대로 도서관의 인식 및 이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는 ‘체험부스(도서관 인식(22.6%), 도서관 이용(2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전시 및 판매’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서관 인식(20.1%) 및 이용(27.5)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연구결과, 북페스티벌의 참석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는 개인의 독서생활과 도서관 활성화라는 둘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의 독서생활은 ‘도서 전시 및 판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 독서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의 인식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험부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북페스티벌의 개최에 있어 북페스티벌의 개최기관 및 개최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실질적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방증한다.

## V. 결론 및 제언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독서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북페스티벌의 개최 빈도가 높아졌으며, 북페스티벌을 통해 국민의 독서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북페스티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북페스티벌 참석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페스티벌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의 20~30대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경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북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참여목적은 체험부스의 참석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본인과 더불어 자녀의 체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자녀의 독서교육을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북페스티벌의 개최 시 프로그램 구상에 있어 영유아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자녀-부모 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북페스티벌 인식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출판사 및 서점의 도서관 전시 및 판매 부스’에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행사 중요 요소 중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단기적인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축제, 문화로 발전되기를 원하였다. 반면 지역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북페스티벌의 발전을 의미하는 호혜적 상생 요소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이 책과 관련한 주요 행사로써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로의 발전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페스티벌의 참여만족도는 3.3~3.7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북페스티벌이 책을 매개로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페스티벌에서 참여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는 ‘체험부스’로 참여목적으로 볼 때 참여자의 참여목적에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서 전시 및 판매’는 도서를 전시해 주는 ‘도서전’의 만족도는 높으나, 도서의 판매와 관련한 ‘중고장터 및 저렴한 책’ 부분의 만족도는 낮았다. 이는 북페스티벌에서는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도서 정가제의 시행으로 그렇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북페스티벌에 대한 도서정가제 예외 규정을 통해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반적인 북페스티벌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시설이나 진행적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설과 진행적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참여 의사의 경우 4.05로 한 번 참여한 참여자는 또 다시 북페스티벌을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볼 때 북페스티벌이 지역문화와 독서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페스티벌 참여는 참여자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의 인식,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페스티벌에서 ‘도서 전시 및 판매’는 개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참석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서 전시 및 판매를 통해 개인의 독서생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페스티벌에서 ‘체험부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참석자는 도서관의 인식과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급 도서관에서는 북페스티벌에 다양한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페스티벌 참여가 개인의 독서생활 및 도서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북페스티벌 개최 시 주관기관의 개최목적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이를 통해 기관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만수. 2010. 『문화콘텐츠 유형론』. 서울: 글누림.
- 류정아. 2015. 『축제와 융합 콘텐츠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국제도서전 2016 홈페이지, “연도별 도서전”. <[http://2016.sibf.or.kr/sibf2016/bookfair - history/](http://2016.sibf.or.kr/sibf2016/bookfair-history/)>. [인용 2016. 8. 26].
- 안찬수. 2014. 국내외 북페스티벌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 51(9): 14-21
- 이만수. 2008.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09-429.
- 정대근, 강혜라, 홍소람. 2016. 북페스티벌의 문화적 가치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4: 121-144.

-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 조찬식. 2016. 북페스티벌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135-149.
- 책과 교육연구소. 2015. 『2015년도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책과삶. 2014. 폐허의 변신... 문화 꽃 피운 책 박물관. <<https://goo.gl/ptyi3m>> [인용 2016. 9. 9].
- Cheltenham Literature Festival Homepage. <<http://www.cheltenhamfestivals.com/literature/>> [cited 2016. 9. 9].
- Driscoll, Beth. 2015. "Sentiment analysis and the literary festival audience."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29: 861-813.
- Johanson, Katya, and Robin Freeman. 2012. "The reader as audience: The appeal of the writers' festival to the contemporary audience."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26(2): 303-314.
- Meehan, Michael. 2005. "The Word Made Flesh: Festival, Carnality and Literary Consumption." *Text*, Special issue, 4. <<http://www.textjournal.com.au/speciss/issue4/meehan.htm>> [cited 2016. 8. 2].
- Moeran, Brian. 2010. "The Book Fair as a tournament of value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N.S.)*, 16: 138-154.
- Ommundsen, Wenche. 2009. "Literary festival and cultural consumption." *Australian Literary Studies*, 24(1): 19-34.
- Stewart, Cori. 2009. *The culture of contemporary writers festival*. Ph. D. Dis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Weber, Millicent. 2015. "Conceptualizing audience experience at the literary festival." *Continuum: Journal of Media & Cultural Studies*, 29: 84-96.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Chan Soo. 2014.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spec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ok Festival." *National Assembly Library*, 51(9): 14-21.
- Book and life 2014. *The transformation in ruins ... A book to full blooming of culture museum*. <<https://goo.gl/ptyi3m>> [cited 2016.09.09.]
- Books and educational institutes. 2015. *Case Study of Reading Actual Condition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of the major Countries in 2015*, Seoul: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
- Cho, Chan-Sik. 2016. "A Study on the Book Festival : The Case of '2015 Seongbuk-Gu Book Festiv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135-149.
- Kim, Man-Su. 2010. *Cultural content typology*. Seoul: Geulnurim
- Lee, Man-Soo. 2008. "A Study on the Events of Public Library for Reading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09-430.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2013. *Basic Plan for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2014~2018)*,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Jeong, Dae-Keun, Gang, Hye-Ra, Hong, So-Ram. 2016. "A Study on the Cultural Value of the Book Festival."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4: 121-144.
- Ryu, Jung-A. 2015. *Festivals and Fusion Content Strategy*. Seoul: Communication Books.
- Um, Hye Jin. 2011. "A Study on Contents of Seoul WOW Book festival."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Conference*, 9(1): 423-424.